



2025년 / 1월 1주차

■ 금주 연구원 주요 일정

- 1월 8일(수) 16시 : 사무국 주간회의
- 1월 9일(목) 16시 : 마을기록화 편집회의
- 1월 11일(토) 16시 : 2025년 정기 이사회

■ 연구원 소식

- 신규 회원 안내

2025년 을사년의 시작과 함께 연구원 문을 열고 새로운 식구가 들어오셨습니다.

김두현 님이 그 주인공입니다.

김두현 회원은 전북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신 뒤 광동학원(군산중앙고등학교, 중앙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시다가 퇴직하신 후 지역사를 연구하고 계신 분입니다. 일찍이 변주승 원장과 김익남 회원 등을 통해 연구원과 교류하다 연구원의 식구가 되셨습니다. 연구원이 자리한 전주와 가까운 군산을 터전으로 활동하고 계신만큼 앞으로 연구원 사업의 현장에서 자주 뵙길 소망합니다.

창경호 침몰 - 1953. 1. 9.

1953년 1월 9일 오후 두 시 창경호라는 이름의 배가 여수항을 떠났다. 전쟁 중이라지만 그래도 설은 쇠야 했기에 임시수도 부산으로 향하는 창경호에는 호남의 곡창지대에서 난 쌀 450가마와 수산물 50가마가 배에 가득히 실렸다. 다도해의 거친 파도를 헤치고 통영항에 입항했을 때는 이미 어두워진 뒤인 6시경.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창경호를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다. 역시 구정 대목을 노려 부산에 가서 물건을 떼 오려는 상인들이었다. 그렇게 올라탄 사람이 수백 명.

원래 일본 화물선 천신환이었던 창경호는 미군의 폭격으로 손상된 것을 대충 고쳐서 다시 바다에 띄운 허약한 배였다. 만들어진 지는 20년이 지났고 배 자체도 불안정했다. 여기에 쌀 수백 가마와 정원 이상의 사람들이 들어찬 것이다. 1월 9일 그렇지 않아도 파도가 드높은 겨울 바다였다. 통영을 떠나 부산의 목전인 다대포 앞바다에 이른 창경호에는 연신 파도가 부딪혀 공포스런 포말로 부서졌다. 흡사 피난선처럼 사람들이 들어찬 창경호 곳곳에서 토하는 소리가 들렸고 파도를 걱정하는 소리도 들렸다. 그러던 중 커다란 파도가 창경호의 옆구리를 들이쳤고 순식간에 배는 중심을 잃고 기울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다른 파도가 배를 때렸고 창경호는 순식간에 물속으로 곤두박질쳐 들어가고 말았다.

공식적으로 그 배에 탄 사람은 236명이었지만 실상은 더 많았을 것으로 본다. 어쨌든 236명 사망자 가운데 229명이 엄동설한 겨울 바다의 원혼이 됐다. 생존자는 단 7명. 창경호에는 구명장비가 전혀 없었다. 구명장비는 '도난'을 우려해서 배가 아니라 회사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장비보다 사람의 목숨을 소홀히 한 댓가를 창경호는 처절하게 치르고 말았다. 여기에 교통부 장관이란 이의 망언이 유족들과 국민들의 분통을 터뜨리고 말았다. “창경호 사건은 풍랑 탕”이라며 인력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사고로 규정했던 것이다. 후에 밝혀진 일이라면 그는 창경호 선주와 인척 관계였다. 여객선 개조, 정원 초과, 안전 장비 미비 등 모든 것이 눈에 훤히 보이는 불법이었던 창경호 사건을 불가항력으로 규정한 교통부 장관은 분노한 국민들 앞에 사표를 내놓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창경호 침몰은 탐욕을 부리는 이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보였지만 창경호의 마(魔)는 그것으로 사라지지 않았다. 1967년 진해 가덕도 앞바다에서 역시 여수와 부산을 오가던 여객선 한일호가 구축함 충남함에 부딪쳐 침몰하여 90명이 넘는 이들이 떴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 배의 엔진은 바로 14년 전 침몰한 창경호의 엔진이었던 것이다. 인양한 배에서 엔진을 떼 내어 자기 배에 달고 운항하던 한일호 역시 구명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그를 점검해야 할 공무원도 사바사바에 눈을 감았으며 결국 그 많은 생명을 물속에 가라앉히고 말았다.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일어난 세월호의 비극은 이렇듯 장대한 대한민국 역사의 물염치함을 증명한다. 엄중한 반성과 서릿발 같은 진상규명은 침몰과 함께 수장시켜버리고 순간의 모면에 집중해온 우리의 모습은 앞으로 더 큰 포한으로 다가올 수 있기에 두렵기만 하다.

2024년 세밑, 무안공항에 착륙하다 폭발한 제주항공 2216편이 사고 이틀 전부터 사고 당일까지 총 13회를 비행한 기록을 보며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돈 몇 푼에 사람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악습은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기에 바다 위에서 살려달라 악을 쓰다가 물 속으로 사라져간 이들의 혼은 어찌 달랠 수 있을까?

부디 편히 쉬소서...